

부처를 뽑는 과거장(選佛場)이 열렸다. 15일(음력 4월 보름) 조계종 산하 전국 90여개 선방에서 2,000여 납자들이 하안거 결제에 돌입한 것이다. 선불(選佛) 즉 '부처를 뽑는다'는 말은 마조(馬祖, 709~788) 선사의 문하에서 참학하던 방은(龐蘊, ?~808) 거사의 다음 계승에서 비롯한다.

선방에서 함께들 모여들어 (十方同一會) 여기가 바로 부처를 뽑는 곳 (此是選佛處)
모두 무위를 공부한다 (各各學無爲) 마음 비우고 급제해 돌아간다 (心空及第歸)

하안거 결제, 용화선원에서 화운사까지

"마음 비우고 급제해 돌아갈" 고향은 과연 어디인가. 그곳은 곧 '본래의 자기'일 터. 그 본지(本地)의 풍광(風光)을 보기 위해 오늘날 수많은 납자들은 '화두'를 든다. '이렇고(是甚麼)' 혹은 '무(無)', 이른 바 1,700공안이 바로 그것이다.

불기 2547년 하안거 결제일 아침. 기자도 화두 하나 들었다. 감히 은산철벽에 도전하는 화두는 아니고, 선객(禪客)들은 왜 '이렇고'라는 '의심 덩어리'를 내려 놓지 못하



◁결제 첫날 행선 중인 화운사 능인선원.

외호 대중 또한 인연 도리에 따른 소임이므로 정성을 다해 불법의 전통을 잇는 수좌를 외호하십시오.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 회교의 정진이 되는 환결을 사십시오. 그래서 동산 스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정진을 할진대는 세상의 모든 인연 버리고, 모든 집착이나 전도된 망상 제거해 버리고 진실로 일사대를 위해 정진하되, 그 선방의 규칙을 자발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니... 삼경이 아니면 자지 말고, 도량을 벗어나지 말 것이며, 대중적인 행사가 아니면 경전을 보지 말아야 한다. (...) 이렇게 하여도 확찰대오를 못하면 거짓말한 과보로 발설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번뇌 망상도 화두를 듣게 하는 선지식의 채택으로 아십시오. (...) 재가자들도 역경계에서 성취가 더 크다는 걸 아시고 가정을 선방으로 삼으면 가정이 생불보살이 사는 도량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용화선원을 뒤로 하고 비구니 선방인 용인 화운사주지혜원, 54의 능인선원으로 발길을 옮겼다. 참으로 고맙게도 화운사의 수좌 스님들이 재가 불자들을 위해 결제 대중의 정진 모습을 지면에 담을 수 있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화운사로 가는 차 안에서 송담 스님의 법문을 되새겨 보았다. 평소 품어왔던 몇 가지 의문의 실마리가 조금 풀릴 기미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재가 불자들이 참선 수행을 어

"가정을 생불이 사는 선방으로 삼으라"



◁용화선원장 송담스님으로부터 하안거 결제법어를 듣는 대중들.

는 결과가, 조사들의 오도기연을 보면 하나 같이 한 순간에 깨닫거늘, 왜 평생을 운수(雲水)의 삶으로 일관하는 결과, 하는 의문을 화두로 삼은 것이다.

인천 용화선원. 선원장 송담 스님으로부터 결제 법문을 듣기 위해 용주사 중앙선원을 비롯한 제방의 선객들이 속속 모여든다. 재가 불자들의 행렬도 끊이지 않는다. 결연한 의지를 담은 얼굴도 있고 소풍 나온 아이 같은 설렘이 드러나는 얼굴도 있다. '비장한 환희심'이 범당 가득하다. 열주 스님 200, 재가자 500여 명 쫓 필 것 같다.

송담 스님의 법문은 참으로 짙었다. 일상의 언어로, 일상의 삶에 빚대어, 선수행의 고원한 경지를 열어 보이셨다.

"오늘 도반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 오늘 방부를 들인 수좌나 이들을 옹호하는 외호 대중들이 다 일대사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수좌나 외호나 근본은 같습니다. 참된 선객이라면 죽이면 죽 국수면 국수, 그저 묵묵히 공양을 수용할 뿐, 맛이 있느냐 없느냐 정성이 부족하다는 불평을 하지 말고 묵묵히 화두를 드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앞장서서 제자들을 이끌고 일곱 집을 돌려 결식을 하셨습니다."

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감 저편의 경지와 강을 건너는 과정의 어려움만을 말할 뿐, 강을 건너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친절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체할지 않으면 자기 공부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오늘, 송담 스님의 법문을 통해 도의 본질에 대해서는, 말로 할 수도 들 어서 알 수도 없음을 조금 알겠다.

옛 큰스님의 말씀, "크게 의심하면 크게 깨닫고, 작게 의심하면 작게 깨달으며, 의심하지 않으면 아예 깨닫지 못한다." 원각경의 그 곡진한 당부, "알음알이로 원만하게 깨달은 여래의 경지를 헤아려 보려는 것은 마치 반딧불로 수미산을 태우려는 것과 같아서 결코 될 수 없는 일이다."

'선객들은 왜 평생 화두를 듣까' 하는 기자의 화두는 여기서 허물어지고 만다. 스스로 의심하지 않는 한 1,700공안이 다 사구(死句)인 까닭이다.

화운사 능인선원. 방선 시간에 잠시 입승(일대, 51) 스님을 만났다.

"결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한철 공부로 확찰대 오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끝없이 반복되는 결제 해제가 무슨 의미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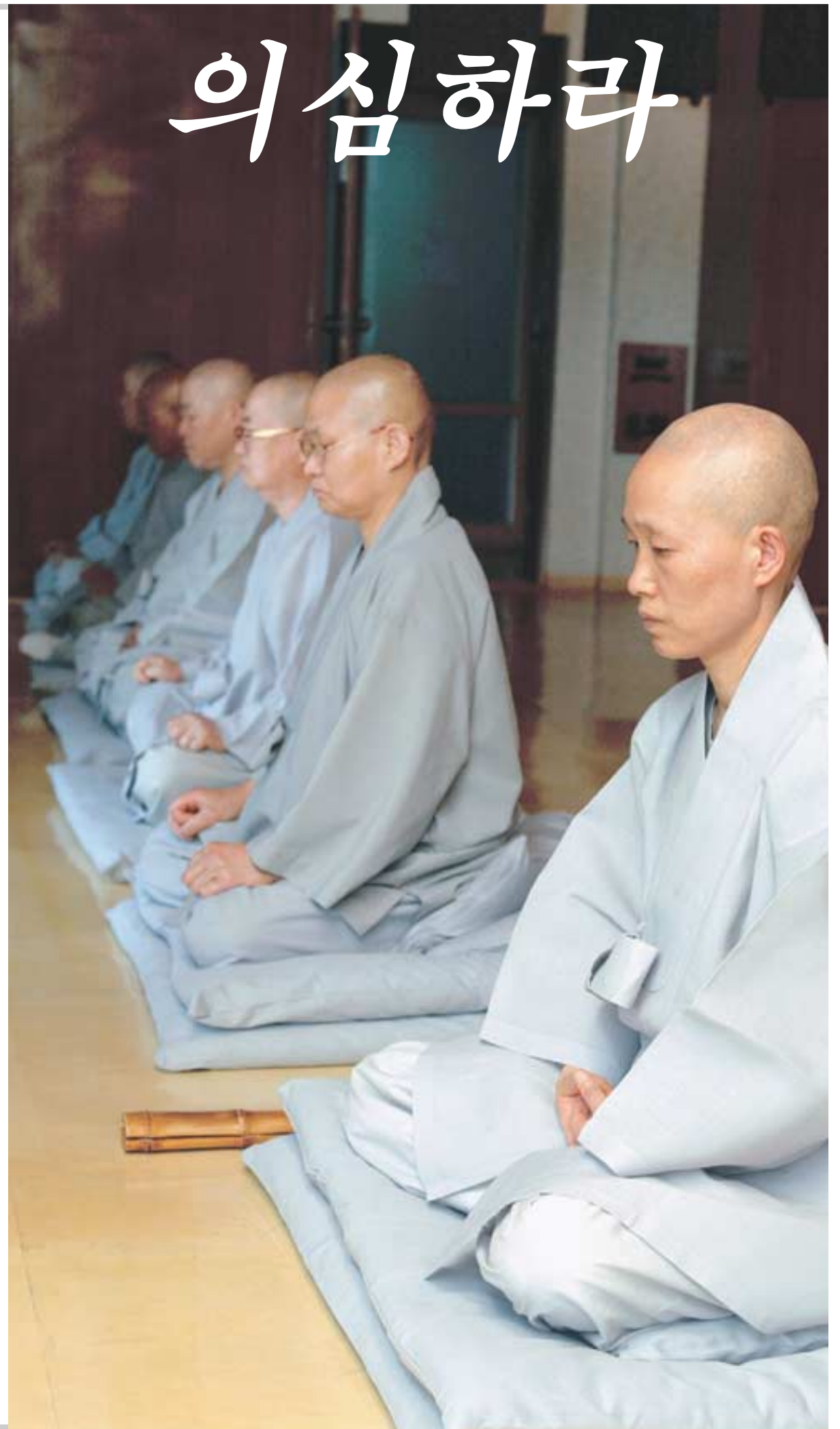
"글쎄요. 몸소 한번 해 보시죠."

"..."

"성불 전에는 해제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다생겁래로 다 저은 숨기를 한 순간에 조복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결제 때면 또 한번 더 신심을 굳게 하고 그림니다만..."

저녁 6시 30분. 딱, 딱, 딱, 딱, 딱 내리는 소리 세 번. 선방은 적멸의 공간이 된다. 그리고 나는 저자거리로 발길을 돌린다. 그 순간, 까치 울음소리 요란하다. 영역 다름이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간다. 시간의 삶에 얽혀서, 해탈도 윤회도 다 그 안에 있을 터인데... 어디로 가야 할까. 오직 모를 뿐이다.

지금 전국의 절 마당에는 불두화가 만발이다.
글=윤제학, 사진=고영배 기자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기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기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도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기 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 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기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